

**특집논문**    **메콩과 국제개발**

**메콩의 에너지 경관**  
**메콩 지역 수력 경로의 형성과 변화\***

The Energyscape of the Mekong: Formation and Transformations  
of Hydropower paths in the Mekong Region

엄은희\*\*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메콩강은 대표적인 국제하천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6개 유역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역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이후 메콩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변화의 밑그림은 아시아개발은행의 ‘대메콩지역’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중국 서남부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자연-경제 공동체’라는 지역이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메콩강은 냉전 시대 갈등의 상징이었던 전선에서 공동의 번영을 위한 통합의 기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메콩 지역에서는 다양한 갈등들이 부상 중이며, 특히 메콩 지역 전역에서 벌어지는 수력개발은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현재 메콩 지역의 수력개발 경로의 기원과 변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주의적 한계에 갇혀있던 국내 메콩연구를 역사적·지리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메콩 유역에서 지역차원의 수력개발의 기원과 국가 및 지역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륙부 동남아를 단일 지역으로 상상했던 출발점이 수력개발 중심의 ‘대문자 에너지 경관’의 구성이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메콩 지역에서 지역통합의 이름으로 수력개발의 경로에서 발생하는 모순적 상호작용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메콩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요어: 메콩 지역, 자연-경제 공동체, 수력 개발, 대문자 에너지 경관, 지역화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4915).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eunhui.com@gmail.com)

## 1. 들어가며

메콩강은 중국 서남부 윈난성의 티베트고원에서 발원하여 인도차이나 반도의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에 이르는 총연장 4,180km인 국제하천이다. 유역 내 6,0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계원인 이 강이 유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문화적 특성에 미친 역사적 영향은 상당하다.<sup>1)</sup> 냉전시대의 메콩강은 ‘전선(戰線)’이자 체계 간 경계로서 의도하지 않게 상당 기간 자연 상태(혹은 저개발 상태)로 유지되며 국제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냉전 질서가 해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회주의 국가들, 즉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차례로 체제 전환에 나서면서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자금의 유입이 요구되는데, 당시 메콩 지역은 태국을 제외하면 체제전환 직후의 저발전 상태여서 유역 내 국가들만의 역량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국제적 개발협력을 통해 유역 안팎의 자금과 기술이 대량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었다.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은 대메콩지역 프로그램(the 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이하 GMS)을 제안한다. GMS는 메콩 수계를 공유하는 유역국가들을 단일한 ‘자연-경제 지역’으로 구성하며, 중국의 서남부지역에서 대륙부 동남아 전 지역을 포괄하는 10년 단위 개발계획의 기본틀(framework)이다. 탈냉전과 경제통합의 시대에 메콩강은 ‘교역과 교류의 통로’이자 유역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수자원’으로 탈바꿈한다. 경제, 정치, 사회

1) 역사학자 밀턴 오스본은 이 지역의 역사를 『메콩: 격동의 과거, 불확실한 미래 (The Mekong: Turbulent Past, Uncertain Future)』(Grove Press, 2001)란 제목의 책으로 묶어내었다.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지역은 프랑스 식민시대부터 1950~1970년대까지 끊임없는 내전과 세계 냉전의 대리전으로서의 열전(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격동의 역사를 거쳐 왔으며, 이후로도 20년 이상 체제 경쟁의 긴장을 내재한 동아시아 냉전의 최전선으로 기능해 왔다.

문화, 에너지·자원 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광역개발계획으로서의 GMS 사업은 지역의 공유자원인 메콩강을 중심으로 국가 간 협력을 넘어서 일종의 통합된 지역 만들기(sub-region building) 혹은 지역화(regionalization) 과정이었다(Glassman, 2010).

하지만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메콩 지역에서는 다양한 갈등들이 부상 중이며, 특히 메콩 본류와 지류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수력개발은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냉전의 시발점인 세계대전 직후까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대륙부 동남아를 넘어서 동아시아로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일종의 지역화 과정으로서의 유역 포괄 개발계획의 역사와 변화를 점검한다. 분석의 초점은 에너지(특히, 수력) 개발 경로의 형성과 변화에 있으며, 이와 같은 시공간적으로 지평을 확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생산된 메콩 지역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중반 메콩 지역에서 역동적 변화가 시작된 이후이다. 특히 국내의 메콩 연구는 GMS 프로그램의 출범 이후 메콩 지역의 경제협력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조영희 2013: 198~199). 메콩 지역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다국적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후발 주자로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인프라 개발 중심의 GMS 사업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에 상응하는 개별국가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늘어난 것이다(대표적으로, 심의섭, 1997; 양승윤, 1997; 김정인·최동주, 1998; 조흥국 외, 2002; 정재완·권경덕, 2003; 김태운 외, 2011).<sup>2)</sup> 그런데, 이 연구들은 초정부적 기구들이 주도하는 지역화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제도주의적 한계에 갇혀있다. 다시 말해, GMS 사

2) 그마저도 2000년대 접어들어 한국의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동력이 약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국내적 관심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 중국 대응(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the Asia)이 본격화되면서 — 메콩 지역 개발에 중국, 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한국도 이 지역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되살리려 노력 중이다. 한국의 대 메콩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이요한(2014)을 참고할 것.

업의 역사적, 지정학적 맥락이나 사업 내부의 모순적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메콩 유역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사고했던 출발점이 GMS보다 앞선 시기에 복잡한 세계사적 역학 관계 안에서 배태되었음을 주목한다. 그리고 이 지역의 격동의 역사 속에서 애초 계획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굴절되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잠행과 부상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메콩의 지역화를 추동하는 유역 단위 개발 계획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그 일부가 선택적·우연적으로 이행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전력과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고려대상이지만 메콩 지역의 경우엔 특히,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국제하천의 속성상 메콩 유역(특히, 본류)의 개발은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초의 메콩 유역 포괄개발계획은 지역 외부(주로, 국제공여기구들과 미국)에 의해 이른바 ‘발전의 선물’로 제공되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풀뿌리 저항의 움직임에 의해 국가 차원의 수력개발이 영향을 받은 사례도 찾을 수 있다(예: 태국의 팍문 댐). 이처럼 메콩 지역의 전력·에너지 개발 사업은 국가의 독점적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비-국가(non-state) 행위자들의 존재를 아우르는 다중적이며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냉전/탈냉전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역의 수력개발을 둘러싼 협력과 갈등의 구조의 형성과 변화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메콩 지역의 거시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지역화를 검토함으로써 메콩이 가진 중층적 의미를 확인하고, 지역의 구성에서 수력개발이 차지한 위치를 확인한다. 3절에서는 냉전 시대에 메콩 지역 수력개발 경로가 도입되고 지역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수력개발이 ‘발전’의 기표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탈냉전시대에 중국과 라오스의 국가적 차원의 수력개발과 지역적 차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력연결망 사업(Mekong Grid)에 주목함으로써 메콩 지역의

수력개발에서 새롭게 등장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의 복잡성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5절은 결론 부분으로 메콩 지역에서 발전의 지표로서 도입된 수력개발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환경적 비판이 중층적인 맥락 속에서 경쟁과 교착을 반복하는 모습을 조망한다. 더불어 개발협력과 경제 협력을 통해 이미 이 지역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한 한국 사회가 메콩 지역과의 교류협력에서의 주의할 지점과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 2. 메콩과 지역화

한국의 지역지리학 연구에서 해외 지역연구(area studies), 특히 신흥지역에 관한 관심과 연구 성과의 축적은 매우 미진한 편이다(김종규, 2001: 293). 1990년대 이후 지구화와 지역화의 심화로 초국가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확대되는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지리학이 아닌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주로 발견된다.<sup>3)</sup> 국제관계에서 한국과 동남아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증대되는 가운데 인문사회과학 연구와 자연과학 연구의 다리를 놓는 “지평 확대자”(전제성, 2014)로서의 지리학 연구에 대한 기대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단계 메콩 지역 연구의 지평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력 개발을 둘러싼 다중스케일적 역동성을 역사·지리적으로 분석한다. 메콩 지역처럼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장을 연구하는 데에 최근 정치지리

3) 대표적으로 최영중(2007: 61)은 지역화 혹은 지역통합을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효과들(externalities)을 일군의 국가들 간에 내재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지역통합은 주요행위자와 통합의 과정에 따라 지역주의(regionalism)와 지역화(regionalization)로 구분된다. 지역주의가 경제동맹이나 무역협정과 같은 공식적인 정부 간 합의와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지역화는 덜 ‘구조적이거나 좀 더 시장주도적 통합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선희, 2007).

학 일부에서 주목받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기여할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정치지리학자로 짐 글래스만은 지구화의 한 형태로서 메콩 지역의 지정학적이며 지정학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메콩의 지역화를 둘러싼 제도와 거버넌스들의 담론보다는 그러한 담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담론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것을 목표로 다중스케일적, 계급기반 접근을 통해 메콩 지역의 변화를 추적한 바 있다 (Glassman, 2010). 본 연구는 그의 관점을 지지하고 계승하되, 환경정치적 차원을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 1) 경합하는 지역 범주들

지역(region)은 지리학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지리학의 역사와 함께한 주제이지만 그 정의는 여전히 경합 중이다. 고전 지리학에서 지역은 일정한 특성 혹은 기능으로 구별되는 한정된 공간으로 개념화되었으나, 1980년대 지리학의 문화적 전회(cultural turn) 이후 이 개념은 더욱 복잡해졌다. 최근엔 지속적이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지역은 더 이상 객관적 기준에 의해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과정을 통해 물질적 혹은 담론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공간 구성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임병조·류제현, 2007: 586). 따라서 ‘사회적 구성물’인 지역과 지역화 과정을 지리·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일은 현대 지리학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구화로 민족-국가라는 주어진 스케일의 규정력이 약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박배균, 2012: 41).<sup>4)</sup>

사회-공간 구성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메콩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몰과 그의 동료들(Moll et al., 2009)은 인간과 메콩강 간의 상호작용과

4) 국가 하위의 지역화로서의 로컬화(localization), 국가나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은 로컬 간의 압축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트랜스 로컬화(trans-local), 혹은 지구화의 한 형태로서의 국제적 지역화(regionalization) 등의 움직임이 폭넓게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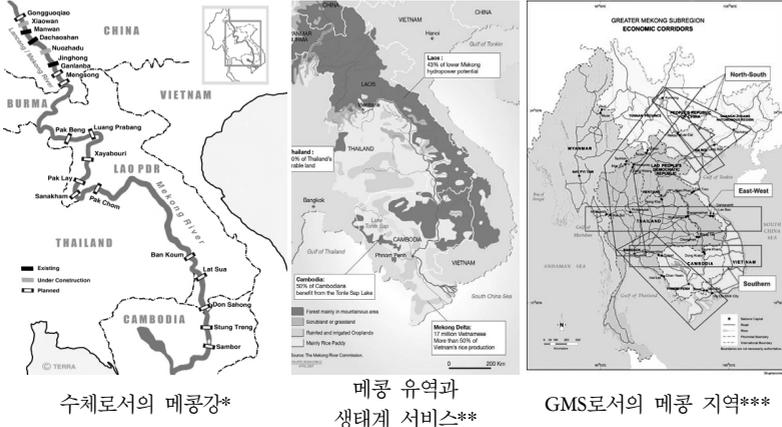
이를 통해 변화되는 물 경관을 만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정에 주목하며, 메콩을 아래 세 가지 의미의 규모, 구체적으로 1) 강으로서의 메콩(the Mekong), 2) 유역으로서의 메콩(Mekong Basin), 3) 지역으로서의 메콩(Mekong Region)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수체(water body)로서의 메콩강은 티베트고원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남북으로 길게 관통하며 메콩델타까지 이어진 총길이 4,180km에 달하는 국제하천 그 자체다. 역사적으로 치수는 정치영역의 중요한 과제였으나, 근대 들어 물은 개발의 대상인 ‘수자원’으로 변화되었다. 관리대상으로써의 수자원의 핵심적 특징은 물리적 속성(수량, 퇴적물, 낙차 등)으로 환원된다. 반면 메콩 유역은 국제 하천 메콩의 분수계(watershed) 범주로 수생태계, 수변생태계, 이에 부속된 생물리학적 동학, 그리고 이에 의존하는 사회생태계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중국(윈난성)의 일부, 미얀마 영토의 약 4%, 라오스 영토의 97%, 태국 영토의 36%, 캄보디아 영토의 86%, 베트남 영토의 20%가 포함되고, 총면적은 795,000km<sup>2</sup>에 달하며, 약 6000만 명의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메콩 유역의 생태계 서비스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콩 지역은 대륙부 동남아의 5개국과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성을 포괄하는 아대륙(sub-region)으로, 메콩 유역뿐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의 주요 강들<sup>5)</sup>과 그 유역이 모두 포함된다. 총면적은 2,600,000km<sup>2</sup>에 달하며 약 3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사회경제적·물리적 실체다. 각각의 개념은 상이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으며, 강조하려는 목적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메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목적으로 재현하는가는 사회적 관계와 맥락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메콩 유역의 개발과 수자원 활용을 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계인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이하 MRC,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후술함)와 GMS가 지향하는 메콩 지역에 대한 상을 비교해

5)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라와디 강(미얀마), 누-살윈 강(중국/미얀마), 핑-짜오 프라야 강(태국), 란창-메콩강(중국 포함 6개국), 우완-홍강(중국/베트남).

<그림 1> 메콩의 중층적 의미



- \* 수력발전용 댐에서 메콩강은 풍부한 유량으로 환원된다(출처: International Rivers).
- \*\* 메콩 유역의 생태계 서비스는 6000만 명 이상의 유역민의 직간접적 생계원이다(출처: MRC).
- \*\*\* ADB는 대메콩지역이라는 새로운 지리적 상상을 통해 역내 경제 부흥을 약속하며, 지역의 주요 경제거점들을 연결하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 건설을 1차적 목표로 삼았다(출처: ADB).

보자. 메콩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MRC가 관심을 갖는 범주는 메콩 유역(Mekong Basin)에 가깝다. 하지만 이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는 중국과 미얀마를 제외한 하류메콩 유역(Lower-Mekong Basin)의 4개국(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정부 간 협의체로 한정된다. 따라서 발원지에서 연안 삼각주까지 통합유역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는데, MRC의 이러한 조직적 한계는 전신(前身)인 메콩위원회(Mekong Committee)가 냉전 질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유래한다. 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역내 연결망 구축을 통한 경제통합 실현을 강조하는 GMS 프로그램은 메콩 지역을 포괄하는 메콩 지역 공동체를 추구한다. ADB는 중국(윈난성 및 광시성)과 하류메콩 5개국을 포괄하는 대메콩지역을 하나의 ‘자연-경제 지역(a single natural-economic area)’으로 담론적·물질적으로 생산해 왔다.<sup>6)</sup> 이처럼 전통적인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새롭게 지역을 구

6) 아시아개발은행은 GMS 프로그램의 추진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메콩 지역

성하는 과정은 각각 상이한 ‘상상의 지역들(imagined regions)’을 생산하며, 개발과 관리의 목적에 따라 상호 경쟁하고 공존한다.

## 2) 메콩에서 발전과 에너지의 상관관계

메콩 수계의 수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댐이나 유역변경 등의 대형 인위적인 개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The Economist, 2004). 냉전 시기 동안 시장경제 블록과 사회주의 블록으로 인도차이나 반도가 분리된 상황에서 두 진영을 가로지르는 개발 협력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탈냉전평화 시대의 도래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변화 지표는 매우 눈부신데, 특히 메콩 지역의 전환경제 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경제성장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상호 견인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증대로 이어져 왔다. 경제발전의 전망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인데, 대륙부 동남아 지역에서는 메콩강이라는 공유자원의 존재 덕분에 전력과 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지역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발전과 그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메콩 지역에서는 특히 수력발전이 강력한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 중에 있다. 2005년 세계수력발전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제수력댐건설(International Water and Dam Construction)》(2005)이란 잡지는 “동남아시아가 수력으로 돌아섰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세계은행과

---

의 특성을 단일한 자연자원으로 규정하였다. “메콩 지역(sub-region)에서의 탈냉전 평화의 상황은 국경을 초월하는 교역, 투자, 노동 이동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촉진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메콩 유역의 6개국은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한다”(ADB, 1999: 5~6).

하지만 글래스만의 분석에 따르면, ADB의 GMS 구상은 메콩강을 공유한 인접국들 간의 국경 무역이나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역 내 통합’보다는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지역 외부의 투자자본 및 산업자본들과 지역에서 선택된 몇몇 거점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불균등 발전 전략’(Glassman, 2014: 6)이었다는 지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메콩 유역은 수력 잠재력의 10%만이 활성화된 과소개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적인 수력개발 이해관계자에게 수력발전은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원”(IEA, 2011)으로 재-정의되면서 기후변화의 시대 수력발전이야말로 메콩 지역의 발전을 이끌 청정기표로 재-강화되는 듯하다.

메콩 지역에서 수력개발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의 출발점은 체제전환 이후인 1990년대보다 훨씬 앞선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커에 따르면, 메콩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사고하게 만든 근본적인 추동력은 수력발전에서 유래했다(Bakker, 1999).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신생독립국들이 모여 있는 이 지역에 적합한 발전의 토대로 처음부터 강력하게 수력발전이 제시되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카이스티와 카코넨은 메콩 지역은 처음부터 물 경관(waterscape)보다는 에너지 경관(energyscape)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sup>7)</sup> 이들은 중국을 포함하는 메콩 지역 6개국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발상은 사실상 란창-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잠재력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주장한다(Kaisti and Käkönen, 2012).

카이스티와 카코넨이 제안하고 본 연구가 주목하는 ‘에너지 경관’이라는 용어는 대륙부 동남아의 지역화의 비가시적인 부분, 즉 지역 차원의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의 체계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현대 사회는 그 사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에 따라 평가되곤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에너지 수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만큼 국가와 해당지역의 부(wealth)도 향상된다는 믿음이 상식처럼 통용된다. 일종의 생산력주의(productivism)가 근대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가 된 셈이다. 그런데, 에너지라는 개념적 순수성

7) 저자들은 경관(scape)이란 용어를 아파두라이에게서 차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파두아라는 — 경관(혹은 정경)이라는 접미사를 통해, 지구화 시대에 새로운 지구적 문화 경제는 더 이상 중심-주변부의 이분법적 종속 구조가 아니라 인적·물적·가상적 흐름의 교차에 따른 다양한 경관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Appadurai, 2000).

이면에는 상당히 복잡한 사회경제체계의 구성 논리와 메커니즘이 자리하고 있다. 근대 이전 목재나 토탄을 연료로 활용하는 시대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전력으로 난방을 하고 냉장고를 돌리는 현대 사회는 천양지차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에너지라는 추상도 높은 용어로는 이 모든 것이 포괄가능하다. 다시 말해, 근대사회의 성립 이후 종류가 상이한 에너지‘들’이 에너지라는 추상적 개념 안으로 포섭되어 왔으며, 한 사회의 사회 경제 시스템의 이면에는 외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맥락화된 사회-기술적 레짐(social and technical regimes)으로서 성장 지향적 자본주의 모델이 존재한다.<sup>8)</sup> 결국 근대 사회는 기존에 지역에 따라 혹은 에너지 생산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던 에너지원들(vernacular energies)을 밀도에 따른 절대적인 측정값을 지닌 대문자 에너지(Energy), 특히 화석연료(현대에는 주로 석유)에 기초한 근대적 에너지/전력생산 체계로 수렴해 왔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전력 체계는 일종의 공공재이자 일상적 도시경관에서는 그 실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그림자 인프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가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메콩의 지역화가 추진되어온 ‘발전’으로서의 물리적 경관 변화를 뒷받침하는 지역 에너지 체제가 구상되고 실현되어온 지리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면서, 생활세계의 이면에 숨겨진 메콩의 ‘대문자 에너지 경관’을 가시화시키는 연구 작업이다.<sup>9)</sup> 여기서 경관은 사회 시스템-생태 시스템-기술 시스템의 상호 연계된 본질과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8) 에너지와 전력 체계의 정치경제학에 착목해 온 미국의 지리학자 후버는 에너지는 전체로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 배태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치경제학이나 사회 이론은 더 넓은 사회정치적 변화에서 에너지의 역할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Huber, 2013).

9) 다양한 에너지/전력의 현실태를 소문자 에너지들로, 추상적 수준의 에너지/전력 체계를 대문자 에너지로 구분하는 방식은 김순-그레엄(2013)이 자본주의를 재해석하면서 적용했던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선택된 용어이다. 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제하천 메콩의 상징성과 수자원으로서의 물리적 실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발전 담론(경제 성장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량과 비례한다)과 그 담론에 현실성을 입힌 지역 안팎의 유무형의 개발 지원들이 냉전과 탈냉전의 시간적 흐름 안에서 상호구성되어온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메콩 지역 수력개발 경로의 형성

#### 1) 지정학적 프로젝트로서의 메콩 개발

전후 아시아의 경제부흥을 위해 설립된 ‘유엔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 (ECAFE, the United National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는 1952년 산하 홍수통제국의 보고서를 통해 “향후 40년간의 메콩 유역 수자원 개발을 통해 홍수 조절의 기술적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홍수조절 외에 메콩 유역 전역의 수자원 개발에 대한 상세한 비전이 포함되어 있었다(Molle et al, 2009: 4). 1957년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남베트남, 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메콩위원회(Mekong Committee)가 UN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설립의 목적을 “하류 메콩 유역의 수자원 개발 계획의 수립을 위한 [회원국들 간의] 협력, 감독, 조절”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하류 메콩 지역(특히 라오스 북부에서 캄보디아의 중부까지)에 여러 개의 대형댐을 건설하여, 자유 사행하던 메콩강을 연속된 호수로 가두려는(bounding) 계획 수립에 집중되었다. 이 계획은 ECAFE가 제출한 계획을 뼈대로 한다(Sneddon, 2012). ECAFE는 메콩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해(1957년 10차 회의)에 메콩강의 본류에 총 5개의 댐 프로젝트와 2개의 후보 댐 프로젝트 및 라오스 영토 내 메콩 지류인 남튼 강(Nam Theun)에 댐을 짓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 계획을 유역의 번영과 미국과 그 동맹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지역 내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개발에 기초한 ‘지리정치적 프로젝트’(Hirsh, 2010) 혹은 ‘냉전시기 미국의 실질적 헤게모니 전략’(Jacobs, 2000)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이 메콩위원회에 제공한 개발협력 기금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미국은 메콩 유역국이 아니었음에도 메콩위원회의 설립 이후 10년간 전체 예산의 37%에 달하는 8600만 달러의 원조 기금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 정부는 메콩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 메콩 수계 전역에 대한 기초연구 및 계획된 본류 댐 중 일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Molle et al., 2009). 1950년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세계은행 및 미국원조청(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과 다른 국제금융기구들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방과제로 지역의 경제개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메콩위원회는 1970년 첫 번째 『범유역개발계획(Indicative Basin Plan, IBP)』(Mekong Secretariat, 1970)를 발간했다. 이 계획은 이 메콩 유역의 개발에 관한 종합보고서로 장단기 개발 목표의 수립과 더불어 메콩의 본류 및 지류에서 총 180개에 달하는 잠재적 개발 프로젝트(댐과 관계 시설 도입, 유역 변경 포함)의 목록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메콩 유역에서 ‘에너지 경관’을 형성하는 최초의 밑그림이 되었다.

## 2) 냉전과 범유역개발의 유보

1970년대부터 급변하는 인도차이나의 정치적 역동성은 메콩위원회가 수립한 지역단위 개발 프로젝트들, 특히 본류(mainstream) 개발 계획을 좌초시켰다. 1975년 베트남의 통일과 뒤 이은 라오스(라오애국전선)와 캄보디아(크메르루주)의 사회주의 전환은 메콩 지역을 통합된 하나의 권역으로 사고하며 추진되던 개발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하도록 만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공산화한 대륙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철회한 점이다. 메콩 유역 국가들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메콩위원

회는 후원국들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적이었는데, 미국의 원조 철회는 메콩위원회의 위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neddon, 2012). 1975년 캄보디아가 메콩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남은 3개국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존속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다. 1978년 메콩위원회는 3개국으로 구성된 메콩임시위원회(Mekong Interim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사무국은 태국의 방콕에 둘 것을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메콩 본류 개발의 꿈은 유보되었지만 임시위원회의 메콩 수력개발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 지류 개발로 이동하였다. 메콩 유역의 개별 정부들은 당면한 전력수요의 충당과 관개용수 확보 및 홍수조절을 근거로 자국 영토 내의 메콩 지류에서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데올로기의 장벽은 여전했지만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진보와 발전으로 바라보는 고도 근대화(high modernism)의 신념은 그 이데올로기의 전선을 횡단하며 공유되었다. 예를 들어, 냉전시기 베트남에서는 미국과 세계은행이 태국에서 했던 일과 동일한 상황이 러시아에 의해 재현되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베트남은 단일 국영기업 베트남 전력(EVN, Electricity of Vietnam)을 설립하였다. 1979년 건설을 시작해 1994년 완공된 1,920MW 용량의 호아빈 댐(Hoa Binh Dam)은 아직까지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댐으로 기록되고 있다(Greacen and Palettu, 2007). 1980년대 말부터 라오스 역시 자국 영토 내의 메콩 지류의 댐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동 기간 동안 본류 종합개발의 비전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었다. 메콩임시위원회는 과거와 같이 4개국 구조가 회복되면 본류의 연속 댐 건설을 다시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지를 1980년 연구 사업을 통해 표출하였다. 1987년 《IBP》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초기에 제안되었던 180개 개발 사업 중 16개의 실행을 승인하였으며, 여전히 장기적인 유역 내 수자원 개발을 위해선 8개의 연속 댐을 본류에 건설하는 것을 최고의 옵션이라 강조하였다(Middleton et al., 2009). 다만 메콩 본류 댐의 건설이 경제적인 측면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홍수 조절과 담수 어업,

운송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을 두려 노력하였다. 한편 1991년 임시메콩위원회의 사무국은 프랑스와 캐나다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본류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기존의 연속적인 대형 댐 구조물을 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공법에 따라 ‘월류댐(run-of-river dam)’<sup>10)</sup>을 건설한다는 연구 용역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래로 지구적 수준에서 대형 댐을 포함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의한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Hill and Hill, 1994).

### 3) 체제 경쟁의 수혜자, 태국의 국가전력계획

냉전의 영향으로 범유역개발의 추진은 좌절되었지만, 수력개발을 핵심에 둔 메콩에서의 개발 계획은 지역 내 유일한 서방의 파트너, 태국의 에너지사(史)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일련의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이 해외 원조기구들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태국에 주어진 기술 자문과 경제지원은 태국 내 대형 댐 건설에 큰 도움이 되었다. 태국에서 건설된 최초의 수력발전용 댐은 1957년 짜오프라야 상류의 핑 강 유역에 건설된 부미폰 댐(Bhumipol hydroelectric dam, 535MW 용량의 대형댐임)으로 건설비용에만 당시 세계은행의 차관 6,9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이 차관은 과거 태국이 받았던 차관 총액의 3배에 이르는 거금이였다(Ryder, 1996).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태국의 위치는 지정학적 특이성에서 나온다. 태

10) 월류댐은 용수 저장 없이 유역 변경(인공지류 설치)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인공호가 없거나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articles/print/rewna/volume-4/issue-1/hydropower/run-of-the-river-hydropower-goes-with-the-flow.html>). 대부분 소규모 수력댐 건설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메콩 본류의 경우 규모가 상응하는 점에서 기능과 효과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댐건설이 완료되고 운영이 개시된 후에야 평가 가능하다.

국은 냉전시기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원조와 자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전력생산, 도로개설, 저수지와 운하 건설 등이 포함되었다(Muscat, 1990; Middleton et al., 2009에서 재인용). 댐 건설과 더불어 전력 송전네트워크도 매우 이른 시기부터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말 국영전력회사 태국전력청(EGAT, the Electricity Generation Authority of Thailand)의 설립 역시 국제사회의 권유에 따른 결과였다(Greacen and Greacen, 2004). 수삼 직속의 이 국영기업은 태국의 전력생산과 발전소 운영 및 송전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였다.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태국 정부가 국영기업 EGAT을 앞세워 자국의 전력/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집중한 영역은 다수의 수력개발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태국에서의 전력과 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과 전개가 정부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온 것은 아니다. 메콩 지역에서 서방 세계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가능했던 태국에서는 이웃국가들과는 다른 소위 ‘시민사회’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에 일방적으로 추구되던 수력발전 계획들은 1990년대 들어 이러한 상황은 시민사회와 풀뿌리의 저항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고, 계획의 굴절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초반 팍문 댐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저항은 큰 틀에서 태국의 수력중심 개발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다.<sup>11)</sup>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저항으로 팍문 댐은 결국 건기 동안 수문을 개방하게 되었으며, 태국 정부와 EGAT은 자국 내에서 더 이상의 수력댐 건설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게 되었다(TERRA, 1996).

이런 조건에서 태국 정부는 전력과 에너지의 공급은 두 방향으로 변화를 맞이한다. 하나는 자국 내 전력 생산의 원천을 수력에서 액화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돌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근국가(라오스와 미얀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것이다.<sup>12)</sup> 이처럼 태국이

11) 태국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된 팍문 댐(Pak Mun Dam)을 둘러싼 풀뿌리 저항이 대표적이다. 관련 정보는 TERRA(1996)를 참고할 것.

이웃국가의 전력생산 시설의 개발을 지원하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태국으로 역수입하겠다는 전략은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 지역의 지역화의 흐름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EGAT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부문의 엘리트 집단은 라오스와 중국 윈난성(수력) 및 미얀마(화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국가의 개발에 폭넓은 지원과 개입에 나서게 된 것이다. 태국은 특히 자원외교(resource diplomacy)의 이름으로 라오스 수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Hirsh, 2001: 241).

198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91년의 동구권의 몰락으로 일단락된 세계사적 변화는 메콩 유역 국가들의 대외관계와 지역의 정치 및 경제적 경관 변화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변화의 방향은 당시 태국 수상이었던 차차이(Chatichai Choochavan)가 내세운 “전장에서 시장으로(from battlefields to marketplaces)”라는 정책 구호로 요약될 수 있다. 메콩국가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구가해 온 태국은 역내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메콩위원회의 재건에도 앞장서게 되었다.

#### 4) 탈냉전 평화 시대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등장: MRC를 중심으로

1995년 6월 메콩위원회의 원조 회원국이었던 유역 내 4개국 정부(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가 협력 강화를 목표로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메콩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새롭게 메콩강위원

12) 일본경제산업성(MET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자원별 전력생산 비중은 천연가스 67%, 석탄 20%로 화력의 비중이 높고, 수력은 3%, 그 밖의 요소(수입 포함)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 전력개발계획(PDP 2015) PDP 2015에 따르면 전력원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은 줄어들고 석탄과 재생에너지, 이웃 국가(미얀마와 라오스)로부터의 전력수입 비중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METI, 2015).

회(Mekong River Commission)가 출범하였다. 기존의 메콩위원회 시기에 조직의 목표가 연속된 댐 건설에 기초한 효율적 유역개발이었다면, MRC의 목표는 탈냉전 평화시대 ‘지속가능한’ 메콩 유역의 개발과 관리를 통해 지역 ‘공동의 번영’을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수식어에서도 볼 수 있듯,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의 이후 지구적으로 유행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가치가 조직의 목표와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MRC는 한때 메콩강의 댐 건설을 주요 목표로 삼았던 MC를 역사적·인적으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의심받았다(Hirsh, 2006; TERRA, 1995).

그렇지만 역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지역화 이니셔티브인 GMS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MRC의 역할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경제회랑으로 대표되는 인프라의 구축에 집중하는 GMS 프로그램이 역내 경제성장의 달성에 기여한 바는 명확하지만 다른 한편 경제성장과 함께 이행의 과제로 삼았던 환경 및 사회적 이슈의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들도 상당하다.<sup>13)</sup> 더 나아가 GMS 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잠재적 혹은 현실의 사회환경적 부담을 MRC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sup>14)</sup>

2000년대 이후 지역 안팎의 건설자본과 금융자본들에 의해 하류 메콩 본류에는 총 11개의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이 입안되었다. 이 중 상당수가 메콩위원회 시기에 제안되었던 사업이 역내 전력수요 증대를 이유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인데, 건설사업의 주요 자금지원국가 및 기관과 건설사까지 포함된 리스트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의 프로젝트가 이미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13) GMS의 개발사업은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과도한 착취를 낳았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열매를 농촌보다 도시에 집중시킴으로써 역내 지역별/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특히 농촌과 산림지대 농촌이나 소수종족 공동체의 생계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 등이 대표적이다(Cornford and Matthews, 2007).

14) 좀 더 자세한 내용은 Dore and Lazarus(2009)를 참고할 것.

그렇지만 본류의 개발에 제동을 거는 MRC의 PNPCA 프로세스로 인해 이 프로젝트들의 현실화는 10년 이상 유보되어 왔다. 1995년 MRC 설립의 초석이 되었던 『메콩협약』 안에는 PNPCA(the Prior Notification, Prior Consultation, and Agreement)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PNPCA는 메콩강 본류 및 주요 지류에서 초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의 경우에, 메콩 4개 회원국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사전 고지(PN), 사전 컨설팅(PC), 나아가 4개국의 인준(A)을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여러 단계에도 불구하고 PNPCA 절차의 존재는 개발에 의해 영향을 입게 될 하류 지역의 주민과 국가(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그리고 지역 안팎의 시민사회가 개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영향 조사를 요구하면서 수력개발 프로젝트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기능해 왔다. 하류국가, 주민, NGO들의 요청에 따라 MRC는 제3의 기관(ICEM)에게 하류메콩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SEA)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본류댐의 초국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본류댐 건설의 모라토리엄을 권고하였다(ICEM, 2010).

#### 4. 탈냉전 시대 메콩 지역 수력경로의 변화

##### 1) 중국의 대(對)메콩 정책과 수력개발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메콩강의 상류지역인 란창강 구간에 여러 개의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접 유역국가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함으로써 특히 하류 메콩 국가들의 우려를 낳았다(조윤수, 2000; 류석춘·최진명, 2012). 중국 댐은 상류에 위치한 까닭에 하류지역에 근본적인 영향—주로, 어업, 농업생산, 생태계, 내륙수운 부문에—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류 국가들은 중국에 댐의 장기

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중국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하류메콩 유역국가들은 2010년 메콩 유역을 덮친 지독한 가뭄의 원인이 중국의 댐 건설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측에 대화를 요구하였다. 중국은 2010년 4월 제1차 후아힌 메콩 유역국 정상회의 기간 동안 다른 유역국들과의 협력에 헌신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란창강에 수력발전용 댐 건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Lee, 2013).<sup>15)</sup>

메콩강 상류국 중국과 하류메콩 유역국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중국의 대(對)메콩 전략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메콩 유역개발정책은 중국의 경제정책과 대내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내외 환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틀 안에 존재한다. 중국은 이미 1990년 초반에 연해개방지역(동부 해안)과 중부지역(쓰촨~윈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국의 생산력 분포와 자원배치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와 동남아 등 국제시장과 연결시킨다는 기본 구조를 발표한 바 있다(조윤수, 2000: 27).

중국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메콩국가들과 인접한 윈난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석탄수출기지로서 이미 1900년대 전반기인 중화민국 시대에 이미 초기 산업화의 기틀이 형성되었다(Glassman, 2010: 120). 윈난성은 동아시아의 주요한 강인 누-살윈강, 란창-메콩강, 그리고 양쯔강의 발원지로 풍부한 수자원에 힘입어 수력 개발의 요충지로도 주목받아 왔다. 윈난성은 중국 전체 수력 발전 잠재력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이미 중국의 전체 수력의 10%를 생산하고 있었다. 윈난성의 댐 개발은 마오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마오 시대 개혁으로 인

15) 메콩강 분류 수력발전에 관한 전략적 환경평가(ICEM, 2010)에 따르면, 중국은 8개 댐 총 15,450MW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정부는 본래 14개의 댐을 계획했었으나 1987년 란창강의 중하류의 수력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8개로 댐 계획을 일부 축소하였다. 이 중 5개의 댐(Gongguqiao, Xiaowan, Manwan, Dachaoshan, Nuozhadu)을 2012년까지 차례로 완공하였다.

해 댐 건설과 수력 개발의 규모가 확대되고 민간자본의 참여기회도 넓어졌다. 중앙정부는 1993년 전략산업의 민영화 계획을 입안한 이래로, 1990년대 중반 이미 태국 기업들의 중국 전력부문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에너지부문의 민영화 계획은 서부개발 캠페인과 서-동 에너지송전 프로젝트(WEETP, West to East Energy Transmission Project)를 통해 더욱 촉진되었는데, 원난성의 입장에서는 GMS와 서부개발 양 계획 모두에 포함됨으로써 수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더 큰 추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Henniga et al, 2013).<sup>16)</sup>

중국의 해외 수력개발 사업에서 원난성은 동남아시아와의 인접성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수력개발 프로젝트에 원난성의 행위자들이 이미 BOT 방식으로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 미얀마의 댐 건설이 완료된 후 생산된 전력의 85%가 중국 송전망(Chinese grid, CSPG)에 연결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원난성에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는 이미 에너지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북부 베트남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북부 태국으로의 전력 수출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류메콩 지역인 란창강 본류에서의 댐 건설은 하류 메콩 유역국들에 상당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원난성, 광시성 두 지역을 중심으로 GMS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으나 MRC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메콩강의 상류에서 진행되는 수력개발의 영향을 둘러싸고 중국과 하류메콩 유역국들 간에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모순적 상호작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2) ‘아세안의 배터리’ 라오스의 수력기반 발전전략

- 16) 개혁개방이 시작된 1980년대 초 중국의 발전량은 66GW에 불과했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2012년 기준 수력발전량 1139GW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의 전력생산국이 되었다. 이중 수력생산용량은 연간 249GW(2012년 기준)인데, 이 규모는 그 다음으로 높은 수력용량을 갖춘 브라질, 미국, 캐나다의 수력용량을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Henning et al., 2013).

메콩 유역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집약적인 수력개발 현장으로 부상 중이다. 특히 하류 메콩 본류와 지류에서만 계획되거나 건설 중인 수력 발전용 댐의 수는 100개를 상회하는데, 유역국가들 중에서 수력개발 분야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라오스다. 인구 680만 명에 불과한 이 내륙국(land-locked country)은 메콩 유수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9개의 본류 댐을 포함하여 60여 개의 댐이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Grumbine and Xu, 2011). 하류메콩의 수력 개발 잠재력은 약 3만 MW(본류 1.3만 MW+지류 1.7만 MW)로 추정되는데, 이 중 라오스는 약 2만 MW로 하류메콩 유역국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라오스의 수력 발전량은 약 2,612MW로 전체 잠재량 대비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력 개발을 위한 라오스 정부의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이요한, 2013: 124).

1970년대 초반 건설된 150MW 용량의 남응 댐(Nam Ngum Dam, 현재는 남응 1댐)은 라오스의 제1호 수력발전용 댐이자 메콩위원회의 계획 하에 실현된 유일한 수력개발 프로젝트였다. 이 댐은 1960년대 말 메콩위원회와 세계은행의 기술지원 및 10개국의 금융 지원으로 건설되었고, 1971년 상업 운영을 시작한 이후 1980년대까지 생산 전력의 70~80%를 태국으로 수출하였다. 남응 댐은 라오스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되었는데, 이처럼 라오스에서는 태국으로의 전력 수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력발전용 댐 건설이라는 특수한 경로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태국은 라오스 수력개발의 가장 중요한 수요국이자 투자국이다. 라오스 정부는 2015년까지 총 7천MW의 전력을 태국에 수출할 계획이다(Government of Lao PDR, 2010). 최근 메콩 유역국가 및 시민사회에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하류 메콩 최초의 본류 댐인 사나부리 댐 역시 36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비용과 시공을 모두 태국의 국영은행과 태국의 국영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라오스의 전력 생산의 목표는 국내 전력화(국민의 전력 접근성 증진과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보다는 태국 수출용으로 기획되었다. 다시 말해, 라오스에서의 전력 개발에는 애초부터 메콩 유역을 아우르는 지역화의 경로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오스의 체제 전환은 1997년에 이루어졌으나 수력 부문의 투자 문호 개방은 그보다 앞서 1991년부터 이루어졌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DP뿐 아니라 서구 공여국들도 민간영역 투자를 통해 수력 잠재력을 개발할 것을 라오스 정부에 권고하였다(Middleton et al, 2009). 수력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세수 수입은 라오스의 빈곤탈출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으로 설득되었다. 최근 라오스의 경제 성장에 메콩 유역의 수자원 개발이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요한(2013: 122)은 2000년대에 이후 라오스가 7% 내외의 높은 GDP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었던 근거를 수력에서 찾는다. 또한 2008~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라오스의 주축 산업인 관광업은 결정적인 타격이 있었지만, 전력 수출이 버팀목으로 되어 국가적 위기를 넘겼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라오스는 2010년 9월 하류 메콩 본류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은 11개의 댐 중 첫 번째 댐인 사나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MRC)에 PNPCA의 첫 단계인 고지(PN) 절차를 요구하였다(International Rivers, 2011).<sup>17)</sup> 2014년부터는 제2의 본류 댐인 돈사홍 댐 건설을 선언하면서 다른 MRC 회원국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sup>18)</sup> 사나부리 댐은 라오스 영토 내 깊숙이 자리한 북동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까닭에 이웃국가에 초국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돈사홍(Don Sahong) 댐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라오스-캄보디아 국경에서 18k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가 다양한 생태자원(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이라와디

17) 최근 하류메콩의 본류에서 수력개발을 추진 중인 라오스 정부는 PNPCA를 절차(procedure)가 아니라 범주(category)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나부리 댐의 경우는 라오스 영토 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초국적 영향이 적기 때문에, PN과 PC의 절차까지만 수행해도 된다는 논리이다(2014년 2월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중)

18) 지난 9월 1일 라오스 정부는 돈사홍 댐의 건설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시공사인 Mega-First는 올해 안에 공사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Diplomat, 2015-09-04)(출처: <http://thediplomat.com/2015/09/laos-officially-approves-controversial-dam-project/>).

돌고래)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관광 수익과 주민생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갈등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3) 대문자 에너지 경관의 완성도, GMS 전력망

에너지는 GMS 프로그램의 9개 영역 과제 중 하나로, 메콩전력망(the Mekong Power Grid)은 지역 내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공유하고 역내의 다양한 수준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 공급을 최적화하지는 계획이다.<sup>19)</sup> 본 계획의 기본 구상은 수력원의 공동 개발과 국경을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지역의 전력시장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려는 것이다. ADB는 지역적 차원의 에너지 생산, 거래, 송전의 통합관리를 통한 경제적·환경적 혜택으로 지역 에너지 비용의 19%에 해당하는 총 2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국가 단위로 할 경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지만, 역내의 풍부한 수력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ADB, 2012).

최근 조사에 따르면, GMS 지역의 에너지 자원은 229GW의 수력 잠재력, 12억m<sup>3</sup>의 천연가스, 8억 2천만 톤의 석유 매장량, 280톤의 석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ADB, 2012). 하지만 에너지 자원의 분포는 지리적으로 매우 불균등하다. 대표적으로 수력의 경우 라오스, 미얀

19) 1995년 GMS 지역에서는 지역전력포럼(EPF, subregional Electric Power Forum)이 설립되었는데, 이 기구는 역내 전력 정책과 시설 계획을 다루는 정부 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지역 차원의 전력 거래와 전력망 통합은 GMS 프로그램의 출범 당시부터 핵심 과제로 여겨져 왔다. 2002년에는 GMS 정상회담에서 정부 간 협력(IGA)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역전력조정위원회(RPTCC)의 설립이 합의되었다. GMS 국가들은 총 4단계의 점진적 과정으로 역내 전력 시장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05년 합의된 지역전력거래 1단계에서는 양자간 전력 거래를 위한 전력구매협약 주체들(민간 포함)을 발굴하는 과정이 강조되었으며, 2008년부터 개시된 지역전력거래 2단계에서는 GMS 국경 간 전력 거래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표 1> GMS 지역 에너지 자원 보유 현황

에너지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 (원난성/광시성)	GMS 종합
수력(MW)	9,703	17,979	39,669	4,566	35,103	122,010	229,031
석탄(MT)	10	503	2	1,239	150	26,161	28,065
천연가스	-	-	590	340	217	-	1,179
원유(MT)	-	-	7	50	626	173	819

출처: ADB(2012: 16)의 자료를 재구성함.

마, 베트남, 중국의 두 개 성의 수력 잠재력은 지역 전체의 94%에 해당한다(<표 1> 참고). 이러한 불균등한 에너지 자원 보유현황에 의해, 메콩 지역에서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은 에너지 수입지역으로, 라오스, 미얀마, 중국은 에너지 수출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우에는 국내 전력 수요보다 훨씬 높은 비중의 전력을 생산하여 주변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단위 전력망 구축은 GMS 지역에서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대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ADB는 2010년 발표한 『GMS 마스터 플랜 수정판(Update of the GMS Regional Master Plan)』에서 2010년 지역의 최고 전력수요는 83GW이었으나, 2025년에는 277GW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국은 현재 GMS 내 전력 수요의 29%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 소비국이자 수입국이며,<sup>20)</sup> 그 밖에, 베트남 그리고 광시성과 원난성이 각각 20%씩을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에 굶주린 국가들(energy-hungry countries)에 해당한다. 2030년 태국, 베트남, 중국의 전력 수요는 GMS 전체 전력 수요의 96%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전력수요의 총합은 지역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지역의 발전 전망에 따른 전력 수요 증대에 맞춰 지역의 전력생산도 증가

20) 현재 태국은 라오스와 중국으로부터 각각 7,000MW와 3,000MW의 전력 수입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중국과는 거리상의 이유로 실제 전력수입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태국의 주된 전력수입원은 라오스의 수력발전이다.

<그림 2> GMS 전력망(주요발전소의 위치 및 송전계획)



출처: ADB의 GMS 에너지 계획(<http://www.gms-ecoc.org/map-archive?cat=2>).

고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GMS 전력망의 밀도도 증가해 갈 것이다. 후발국들의 전력 수요와 실질 사용량도 과거 대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메콩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 내 불균등은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생산과 소비 간의 지역적 불균등을 이해하려면, 다른 관점의 질문 예컨대,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계획하는 데에 애초의 수요 예측이 어떻게, 누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력수요 예측은 결코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표 2> GMS 전력 교류 현황(2010, GW/h)

생산국	소비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	-	-	-	-	-
라오스	6.6	-	-	6,938	-	-
미얀마	-	-	-	-	-	1,720
태국	385	1,042	-	-	-	-
베트남	1,155	163	-	-	-	-
중국	-	112.5	-	-	5,599	-

출처: ADB, 2012: 21.

다. 기본적으로 이 예측은 과거에 일어났던 경향(혹은 법칙)이 미래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포캐스팅(forecasting)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많은 경우 전력 수요예측은 과잉 예측된 수요를 스스로 현실화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한재각, 2014).

에너지 최대 소비국 태국의 학계 일부와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주목해보자. 지난 5월 방콕 포스트에 실린 “태국 전력의 숨은 비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태국의 전력수요 전망치가 과잉 계산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Deetes, 2015). 태국의 향후 20년간의 전력 수요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희망하에 결정되었지만, 이 에너지 계획의 숨은 비용과 영향력은 태국을 넘어 메콩 지역 전역에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비판의 핵심은 예비전력의 과잉계산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최고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전력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잉여 전력인데, 현재의 전망치는 이를 15%나 높게 잡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홍수가 있었던 2011년이나 쿠데타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 실제 태국의 전력소비량은 최고 전력수요 예상치에서 39%나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태국의 시민사회와 일부 학계에서는 국내에 더 많은 국내 발전소화력, 수력, 심지어 핵발전소를 짓거나 이웃 국가로부터 전력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깊은 의

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태국은 2011년 대홍수 이후 전력수요 급감을 근거로 새로운 전력개발계획 PDP2012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PDP 2010 대비 75% 수준으로 전력수요 예측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Greacen and Greacen, 2012). 이상의 질문과 우려가 메콩 유역 국가들 중 에너지 요구량이 가장 많은 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메콩 지역의 에너지/수력 개발의 문제는 장밋빛 경제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지정학과 생태정치학의 경쟁구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 5. 메콩의 수력 갈등: 오래된 것, 새로운 것, 재부상하는 것

### 1) 란창-메콩 유역의 연속과 단절

수자원의 제한적 속성으로 인해 국제하천에서 유역국들 간, 특히 상하류 국가 간의 물 이용과 유역변경(diversion)을 둘러싼 갈등은 국제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신연재, 2006 참고). 메콩 지역에서 상류메콩과 하류메콩 간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지형적 조건에서 유래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정학적 이유, 즉 냉전 시대 ‘죽의 장막’으로 대변되던 상이한 체제를 가르는 정치적 경계선에 의해 구분되었다. 1957년 미국과 UN ESCAP로 대변되는 국제사회에 의해 기획된 메콩 유역 종합계획은 철저하게 이러한 냉전의 전선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이처럼 상류와 하류로 구분되던 메콩 지역은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의 세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공산화된 후 새로운 구분선이 추가되면서 더욱 더 복잡한 구조 속에 자리하게 된다(엄은희, 2015).

앞서 1990년대 체제 전환과 더불어 메콩 유역에서는 서로 상이한 두 개의 지역화 흐름으로 GMS 프로그램과 MRC를 소개한 바 있다. 두 지역 거버넌스 체제는 메콩 지역의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지향하는 점에서 중첩되는 목표를 지니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의 구성은 상이하다.

GMS 프로그램은 메콩 전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통합에 방점을 두고 중국 원난성과 광시성 그리고 하류 메콩의 5개국을 포괄하여 9개의 경제회랑의 건설을 꿈꾸고 있다. MRC는 기초 과학 조사 등에서는 메콩 유역 전체를 관심에 두고 있지만 거버넌스 구조에서 중국과 미얀마를 제외한 하류메콩 유역의 4개국으로 제한되어 있다. MRC의 이러한 조직적 한계는 전신인 메콩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이다. 두 거버넌스의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중국의 참여 여부에서 갈리지만, 그 이면에서는 글로벌 슈퍼파워로서의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메콩 지역에서 갈등을 빚으며 협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본류에서 추진 중인 수력발전용 댐 건설이다. 이에 미국은 2009년 하류메콩 이니셔티브(LMI)를 창설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내세우는 이미지는 상류의 환경 적(foe) — 중국 — 에 대항하는 하류 국가들의 벗이다. 공공연하게 냉전시대 ‘죽의 장막’이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 초 중국은 제1차 <란창-메콩 고위급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메콩 유역국들에게 제공했던 유무형의 개발협력을 더 공고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란창 강을 메콩강과의 분리된 국가 하천으로 위치지음으로써 자국 내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류 수력발전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하류)메콩국가들에게 다른 방식의 발전 선물을 제공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란창-메콩의 단절/연속의 메커니즘은 상반되지만 동시에 작동 중이며, 이 과정에서 오래된 갈등이 재부상하거나 새롭게 재구성됨을 볼 수 있다.

## 2) 지역의 공동번영 대 국가 이익

메콩 지역은 아세안 10개국 안에서도 지역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는 수자원 공동 관리가 중심이 되지만, 현실에서 개별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의 과

정을 살펴보면 유역 내 공유 수자원의 공동관리보다는 자국의 경제 성장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Mattews, 2012). 1990년대 중국이 상류 메콩(란창강)의 본류에 댐을 짓기 시작했을 때, 하류메콩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2008년과 2010년 하류메콩의 상류부인 태국 북부와 라오스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류국가인 중국과 하류메콩 유역국 간의 갈등이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2011년 하류메콩 유역국인 라오스가 본류댐 건설 계획을 공표하면서 메콩 유역의 수력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두 개의 본류 댐 중 사나부리 댐은 태국계 은행과 기업에 의해, 돈사홍 댐은 말레이시아 기업에 의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1995년 MRC 협약에 따르면 회원국 중 한 두 국가의 의지만으로 PNPCA 프로세스의 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와 태국 정부는 PNPCA 프로세스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고 댐 공사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Pöyre, 2011), 계획된 일정에 따라 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MRC의 회원국 중 하나로서 태국은 사나부리 댐에 대해 입장 표시를 명시화하지 않는다. 분명한 우려를 표명하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입장과 분명히 대조된다. 반면 라오스-캄보디아 국경에서 진행되는 돈사홍 댐에 대해 태국은 다른 두 하류 국가(캄보디아와 베트남)와 더불어 분명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국영전력회사와 건설회사를 통해 하류메콩의 주요 댐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하류메콩국가의 댐은 대부분 WB나 ADB의 용자에 기반한 공공 투자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댐은 상업적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러한 투자에서 중국(자본)의 지분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지류와 본류 댐 건설 계획에서 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Hirsh, 2011). 하류 메콩의 본류에 계획된 댐 중에서도 팍땡, 팍라이, 사나감, 삼

보 댐에(4개/11개) 중국의 투자가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는 본류 댐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일부 베트남 기업들은 만약 라오스의 루앙프라방과 캄보디아의 스텡 트렝 댐의 건설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지분 참여의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역내에서 댐 건설을 둘러싼 상업적 이해의 지형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시민사회도 사안에 따라 상호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 환경단체 중 한 기관은 특수한 것대중을 중심으로 한 대중 캠페인을 주요 활동전략으로 삼고 있다. 최근 이 단체는 돈사홍 댐 반대 캠페인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라와디 민물 돌고래)의 서식처가 돈사홍 댐 건설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돈 사홍 댐 건설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캄보디아 내 메콩의 지류인 3S 강 유역(Sekong, Srepok, Sesan rivers)<sup>21)</sup>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수의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이 단체의 입장은 모호하다. 본류 댐은 「메콩협약」에서 금지하는 사안이고 지류 댐은 협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3S 강의 댐 건설과 돌고래의 서식처는 무관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sup>22)</sup> 이러한 입장은 본류와 지류의 구분에 관계없이 수많은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의견을 주장하는 또 다른 국제환경단체들, 예컨대 International Rivers SEA나 Save the Mekong group 등의 입장과 대비를 이룬다.

메콩 지역의 초국적 수자원 거버넌스인 MRC는 현재 메콩 지역에서 추진되는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21)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 걸쳐 있는 3S 유역은 하류 메콩의 주요 지류 중 하나이다. 전체 메콩 유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0% 정도지만, 하류 메콩의 수량(25%)과 퇴적물(15%)에 기여하는 몫은 그 이상이다. 이 유역에 계획되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댐의 수는 42개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인 개발이 예고되어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3S 보전 네트워크의 홈페이지(<http://www.3spn.org/>)를 참고할 것.

22) WWF 캄보디아 대표와의 인터뷰(2015-08-23).

하고 있다. 2010년 전략 환경영향 평가(ICEM, 2010)를 통해 향후 10년간 본류 개발의 유보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메콩 본류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과 라오스의 선택을 저지시킬만한 제도적 권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MRC가 초국적 수자원 이슈를 말 그대로 관리할(governing)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국 영토 내의 개발 사업 이행에 몰두하고 있다(Suhardiman et al, 2012).

## 6.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메콩의 수자원 개발을 ‘에너지 경관’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아젠다의 수립과 이행에 영향을 미쳐왔던 역사적 경로, 지역 안팎의 주요 행위자의 역할, 전개과정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전의 표상은 흔히 산업지대의 개발이나 도로 건설과 같은 도시 및 산업 경관의 등장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시설 계획으로 가시화된다. 하지만 산업 및 도시 경관의 이면에서 이러한 경관을 뒷받침하는 수자원 활용계획이나 에너지 체계는 인구와 노동활동이 집중된 도시 및 산업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멀리 어디선가 혹은 건물 내벽과 도로 이면의 배선들 사이로 은폐되곤 한다. 본 연구는 메콩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의 지역적 차원에 주목함으로써 발전의 비가시적인 측면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그 역사적 기원이 전후 냉전의 질서 속에서 배태되었음을 밝혀내었다.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력 생산체제와 광역 송전망에 대한 구상은 애초 냉전하의 체제경쟁 영향 아래에서 구축되었고, 전후엔 개별국가들의 ‘발전의 열망’(Rigg, 2012)에 따라 우연적/선택적으로 이행되어왔다. 1990년대 이후 탈냉전 평화시대의 도래로 유역 차원의 개발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동력이 지역 안팎에서 몰려들었고, 그에 따

라 개발의 규모와 그로 인한 영향도 초국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십 년 동안 경제성장과 에너지수요의 상호건인 관계는 메콩 지역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brutal fact)로 받아들여져 왔다.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메콩 지역에서 초국적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의 장밋빛 미래 비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 온 것이다.

하천에 연속적인 댐 건설로 생산된 전력을 지역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기저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 인위적인 구조물은 자연 하천을 구획/분절시키며 강물과 퇴적물을 정체시킨다는 점에서 분절에 기초한 통합이라는 근원적 역설을 내재하고 있다. 댐 개발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Osborne, 2001). 발전용 댐이 한번 건설되면 이 지역의 수자원은 관개, 어업, 관광과 같은 다중적 용도의 잠재적 편익은 포기한 채 30~50년 동안 오직 전력 생산이라는 한 가지 용도로 고착화되어 버리게 된다. 기존 공동체의 소개 및 비자발적 이주, 전통 문화의 단절, 유수의 양과 패턴 및 기온, 수질, 퇴적물 공급에 변화를 줌으로써, 유역 생태계와 수자원에 의존해 왔던 인간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도 간과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다. 따라서 개발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메콩 지역에서는 경제발전과 에너지 개발을 긍정하는(혹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묵인하는) 태도가 훨씬 지배적이다. 특히 하류 메콩 유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수력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라오스의 댐 건설 추진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은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빈개도국인 라오스는 수력 개발을 제외하면 여타의 개발 자원을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20년 최빈국 지위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를 자임하며 수력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의 견고한 경로를 구축 중인 라오스에 대해 국제사회는 수력개발을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Hutt, 2015). 그러나 라오스의 이러한 선택은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마치 도미노 퍼즐의 첫 조각처럼 이미 검

토가 완료된 9개의 다른 하류 본류댐이나 국가별 지류의 댐 건설 욕망에 불을 지피고 있다.<sup>23)</sup>

물론 경제성장을 향한 거대한 하모니를 거부하며 개발의 사회적·환경적 비용이란 불협화음을 만들어 온 지역의 풀뿌리조직들과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이 무위에 그쳤던 것만은 아니다. 최근 미국의 비영리단체 스티imson 센터(Stimson Center)의 최근 보고서는 본류댐의 건설을 유보시키지는 못했지만 댐 건설에 따른 장기적인 숨은 비용을 드러냈으며, 댐 개발의 지지자들을 방어적으로 만들면서 향후 발생할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Cronin and Weatherby, 2015). 국제적 논쟁의 과정에서 사나부리 댐의 구조가 변경된 점(월류댐 적용, 물고기 사다리 건설, 수운이용 계획 철회 등), 돈사홍 댐의 시공사로 하여금 회류성 어군에 대한 장기 조사와 댐 건설에 따른 주민 보상의 수준을 향상시킨 점 등이 성과로 거론된다. 건설 과정의 숨겨진 비용을 드러냄으로써 수력발전의 경제성이나 투자 매력도를 현실화 시킨 것도 일종의 성과라 할만하다. 이미 50% 이상의 건설이 진행되었지만 사나부리 댐에 대한 태국 북동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저항도 지속되고 있다.

오래된 갈등 위에 새로운 갈등이 더해지며 메콩에서 수자원 개발을 둘러싼 지역, 국가, 계층 간의 갈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메콩의 수자원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서는 메콩 지역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좀 더 구조적인 차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sup>24)</sup> 또한 메콩 유역국들의 과잉 상계

23) 최근 라오스의 영자 신문 *Vientiane Times*에서는 사나부리 댐과 돈사홍 댐의 뒤를 이을 세 번째 본류댐인 팍벵 댐(Pak Beng Dam)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Officials discuss Pak Beng hydropower project design," *Vientiane Times*, 2015-09-23).

24) MRC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은 본 특집호의 이준표(계계 예정)를, 「메콩협약」의 내용적 차원의 보완은 스네돈과 폭스(Sneddon and Fox, 2006)를 참고할 수 있다.

된 에너지 수요예측(특히,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태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엔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댐 개발의 주요 당사자인 중국과 라오스와 실제 개발업체들은 댐 건설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보다 폭넓게 고려할 뿐 아니라 주어진 절차(예: MRC의 PNPCA 프로세스)나 사회적·환경적 가이드라인(예: ADB의 환경 가이드라인 혹은 적도원칙<sup>25)</sup>)을 준수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한국의 대(湄)메콩지역 개발협력에서의 기여할 바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정부 역시 메콩 지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산과 궤를 같이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메콩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출범하였다. 연 1회씩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메콩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본 연구는 대륙부 동남아에서의 지역화의 흐름과 이를 추동해 왔던 지정학적이며 지정학적인 기획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특히 메콩지역과의 개발 및 환경 협력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이해의 지평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메콩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다자간 협력 모델을 지향하지만, 실질적 운영 방식은 여전히 양자간 방식이거나 강한 ‘국익 프레임’에 간혀있다. 이에 수원지역(recipient regions)의 개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간 협력의 틀 안에서 여러 선진 공여국들과 수원국 정부 및 지역기구들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개발 협력의 모델을 익히고 실천할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메콩의 지역적 차원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부응하는 개발협력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과 정책 개발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25)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은 1,000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과 피해를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투자대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이다(Wikipedia.co.kr).

원고접수일 : 2015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7일

최종원고접수일 2015년 12월 16일

 Abstract

The Energyscape of the Mekong: Formation and Transformations  
of Hydropower paths in the Mekong Region

Eunhui EOM

Mekong River in mainland Southeast Asia is one of the great international rivers and for basin development should be based on close cooperation among six basin countries. In the Mekong region,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pursued in earnest after economic transition of previous socialist countries in mid-1990. The principal scheme for change was presented as the Greater Mekong Sub-region(GMS) program initiated by ADB and the program has been aiming to produce “an imagined single natural-economic community” covering whole Indochina Peninsula and southwestern parts of China. In this process, The Mekong River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signifier of integration for mutual prosperity from the frontline of the Cold War conflict. However, various social conflicts has emerged as development projects proceeds and, especially, hydropower development in the Mekong mainstream and its tributaries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By focusing on the origin and trajectories of hydro-developmental path,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horizons Mekong research in Korea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national and regional hydropower development plans, unplanned implementations, and those outcomes and effects in the Mekong River Region. Then, I reveal that a starting point for regional integration in mainland Southeast Asia as a single distinctive unit is the constructing Mekong Energyscape based on intensive hydropower developments in a basin-wide scale. This study will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n the current conflict over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Mekong River by identifying contradictory interactions on the hydropower development path in the Mekong region.

Keywords: Mekong Region, natural-economic community, hydropower development, energyscape, regionalization

## 참고문헌

- 김정인·최동주. 1998.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과 환경·자원갈등」. 《동남아시아연구》 제6권 제1호.
- 김중규. 2001. 「한국지리와 해외지역 연구」.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편).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한울.
- 김태운·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규. 2011.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 류석춘·최진명. 2012.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을 통해 본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배경과 지역협력의 양면성」.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2호, 137~173쪽.
- 박배균. 2012. 「한국학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제1호, 37~59쪽.
- 박선희. 2007. 「신지역주의와 아셈: 세 가지 층위의 지역」. 《유럽연구》 제25권 제3호, 109~133쪽.
- 신연재. 2006. 「물 문제와 국제하천분쟁」. 《국제정치연구》 제9권 제1호, 169~201쪽.
- 심의섭. 1997. 「메콩강 개발사업과 경제적 평가」. 《동북아경제연구》 제9권 제1호.
- 양승운·이요한. 1997. 「메콩강개발과 동남아 지역협력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권 제2호.
- 엄은희. 2015. 「메콩과 사람들 ① 메콩의 지명과 지정학」. 《친디아플러스》 11월호, 포스코경영연구소, 40~41쪽.
- 이요한. 2013. 『메콩강의 진주, 라오스: 들여다보기, 이해하기, 돌아보기』. 한울.
- \_\_\_\_\_. 2014.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 주체의 쟁점과 갈등: 본류 댐 싸야부리와 돈사홍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24권 제2호, 195~238쪽.
- 이준표. 게재예정.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간과 사회》 제53호.
- 임병조·류제현. 2007.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2권 제4호, 582~600쪽.
- 전세성. 2014.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현황과 지리학의 기여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0권 제4호, 379~392쪽.
- 정재완·권경덕. 2003. 『메콩강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영희. 2013. 「메콩지역 환경거버넌스와 비정부조직의 역할」. 《한국태국학회논총》 제20권 제1호, 193~235쪽.

- 조윤수. 2000. 『중국의 대메콩강유역개발정책 및 그 의의』.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2호, 23~68쪽.
- 조흥국·김홍구·박장식·조윤수·하순·권기철·정재완. 2002. 『메콩강과 지역협력』.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최영중. 2007. 『비교지역통합 연구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0권 제1호, 57~75쪽.
- 한재각. 2014. 『한국 에너지정책과 전문성의 정치: 에너지 모델링의 사회학』.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DB. 1999.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n Overview*. Malia: ADB(Asian Development Bank).
- \_\_\_\_\_. 2009. *Annual Report of the Community of Practice on Water*.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 \_\_\_\_\_. 2012. *Greater Mekong Subregion Power Trade and Interconnection 2 Decades of Cooperation*. Asian Development Bank.
- Appadurai, A. 2000. *Modernity at Lar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kker, K. 1999. "The politics of hydropower: developing the Mekong." *Political Geography* 18, pp. 209~232.
- Cornford, J. and Matthews, N. 2007. *Hidden Costs: The underside of economic transform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Oxfam Australia(<https://www.oxfam.org.au/wp-content/uploads/2011/08/oaus-hiddencostsmekong-0907.pdf>).
- Cronin, R. and Weatherby, C. 2015. *Letters from the Mekong: Time for a new narrative on Mekong Hydropower*. STIMSON Center([www.stimson.org](http://www.stimson.org)).
- Dore, J. and Lazarus, K. 2009. "De-marginalizing the Mekong River Commission." in Moll F., Fran, T. and Käkönen. *Contested Waterspaces in the Mekong Region: Hydropower, Livelihoods and Governance*.
- Ferrie J. 2010. "Laos turns to hydropower to be 'Asia's battery'." *Christian Science Monitor* 2 July. Available at: [www.csmonitor.com/World/Asia-Pacific/2010/0702/Laos-turns-to-hydropower-to-be-Asia-s-battery](http://www.csmonitor.com/World/Asia-Pacific/2010/0702/Laos-turns-to-hydropower-to-be-Asia-s-battery) (accessed 19 February 2012).
- Gibson-Graham, J. K. 2006.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University of Minnesota(JK 김승-그레엄 저. 엄은희·이현재 역. 2013.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여성주의 정치경제 비판』. 알트).
- Glassman, J. 2010. *Bounding the Mekong: The Asian Development Bank, China, and Thailand*. University of Hawaii's Press.
- \_\_\_\_\_. 2014(unpublished). *Tracing the Mekong Region: A Critical History of a Political Geography*(proceed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the Mekong Region, December 4-5, 2014).

- Greacen, C. and Greacen, C. 2004. "Thailand's electricity reforms: privatization of benefits and socialization of costs and risks." *Pacific Affairs* 77(4).
- \_\_\_\_\_. 2012. *Proposed Power Development Plan (PDP) 2012 and a Framework for Improving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of Power Sector Planning*(<https://www.internationalrivers.org/files/attached-files/pdp2012-eng.pdf>).
- Greacen, C. and Palettu, A. 2007. "Electricity sector planning and hydropower in the Mekong Region." in L. Lebel, J. Dore, R. Daniel and Y. S. Koma. 2007. *Democratizing Water Governance in the Mekong Region*. Mekong Press(<http://www.palangthai.org/docs/ElectricitySectorPlanning%26HydropowerInMekongFull.pdf>).
- Grumbine and Xu. 2011. "Mekong Hydropower Development." *SCIENCE Vol 332* (2011-04-08 published)([www.sciencemag.org](http://www.sciencemag.org)).
- Henniga, T., Wenling Wangb, C., Yan Fengb, C., Xiaokun Oub, Daming He. 2013. "Review of Yunnan's hydropower development. Comparing small and large hydro-power projects regarding their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socio-economic consequenc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27, pp. 585~595.
- Hildyard, N., Lohmann, L., and Sexton, S. 2012. *Energy Security For What? For Whom?*. The Corner House(<http://www.thecornerhouse.org.uk/sites/thecornerhouse.org.uk/files/Energy%20Security%20For%20Whom%20For%20What.pdf>)(코너하우스 저, 이정필·조보영·권승문·유예질 역. 2015. 『에너지 안보: 지금은 안 보이는 에너지 안보 상상하기』. 이매진).
- Hill, M. T. and Hill, S. A. 1994. *Fisberies ecology and hydropower in the Mekong river: An evaluation of run-of-the-river projects*. Bangkok: Mekong Secretariat.
- Hirsch, P. 2006. "Water governance reform and catchment management in the Mekong region." *Journal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5(2), pp. 184~201.
- Hirsh. 2001. "Globalisation, Regionalization and Local Voices: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Rescaled Politics of Environment in the Mekong Region."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2(3), pp. 237~251.
- \_\_\_\_\_. 2010. "The Changing Political Dynamics of Dam Building on the Mekong." *Water Alternatives* 3(2), pp. 312~323(<http://www.water-alternatives.org/index.php/volume3/v3issue2/95-a3-2-18/file>).
- \_\_\_\_\_. 2011. "China and the Cascading Geopolitics of Lower Mekong Dams." *The Asia-Pacific Journal* 9(1), No. 2.
- Huber, M. 2013. "What do we mean by "Energy Policy?" Life, Capitalism, and the Broader Field of Energy Politics." *State of Nature*(an online journal of radical ideas) (<http://www.stateofnature.org/?p=7138#sthash.Rv3OS2Ci.dpuf>).
- Hutt, D. 2015. *Absolute power*. Globe(<http://sea-globe.com/laos-david-hutt-southeast-asia>).

globe/)(2015-06-04).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1. *Clean Energy Progress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ICEM). 2010.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f Hydropower on the Mekong River Mainstream*. Mekong River Commission (October 2010).
- International Rivers. 2010. *Existing and Planned Lao Hydropower Projects*(<http://international-rivers.org/en/southeast-asia/lao>).
- Jacobs, J. W. 2000. "The United States and the Mekong Project." *Water Policy* 1(6), pp. 587~603.
- Kaisti, H and Käkönen. 2012. "Actors, Interests and Forces Shaping the Energyscape of the Mekong Region."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39(2), pp. 147~158.
- Lee, S-H. 2013. "Hydropower Development in the Mekong River Basin: Analysis through the Hydro-Hegemonic Approach." *The Southeast Asian Review* 23(1), pp. 223~259.
- Matthews, N. 2012. "Water Grabbing in the Mekong Basin ~ An Analysis of the Winners and Losers of Thailand's Hydropower Development in Lao PDR." *Water Alternatives* 5(2), pp. 392~411.
- Middleton C., Garcia J. and Foran T. 2009. "Old and new hydropower players in the Mekong region: Agendas and strategies," In: Molle F., Foran T. and Kakonen M. (eds). *Contested Waterscapes in the Mekong Region: Hydropower, Livelihoods and Governance*. London: Earthscan, 23~45.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METI). 2015. *Research Project on Infrastructure Connectivity in Mekong Region*.
- Moll, F., Fran, T. and Käkönen. 2009. *Contested Waterscapes in the Mekong Region: Hydropower, Livelihoods and Governance*. London: Earthscan.
- Moll, F., Foran, T., and Floch, P. 2009. "Introduction: Changing Waterscapes in the Mekong Region-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xt." in Moll F., Fran, T. and Käkönen. *Contested Waterscapes in the Mekong Region: Hydropower, Livelihoods and Governance*.
- MRC. 1995.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Mekong River Commission, Bangkok.
- \_\_\_\_\_. 2010b. *Assessment of basin-wide development scenarios, basin development plan programme, Phase 2. Vientiane*. Lao PDR: Mekong River Commission Secretariat.
- Osborne, M. 2001. *The Mekong: Turbulent Past, Uncertain Future*. Grove Press.
- Pöyry. 2011. *Government of Laos Xayaburi hydropower compliance report*. Zurich, Switzerland: Pöyry Energy AG([http://www.poyry.com/sites/default/files/imce/eng\\_xayaburi\\_hpp\\_](http://www.poyry.com/sites/default/files/imce/eng_xayaburi_hpp_)

- 09112012\_final.pdf).
- Rigg, J. 2012. *Unplanned Development: Tracking Changes in South-East Asia*. Zed Book.
- Ryder, G. 1996. "The rise and fall of EGAT: From monopoly to marketplace?." *Watershed Nov.96/Feb. 97*, pp. 13-25(<http://journal.probeinternational.org/1996/11/01/rise-and-fall-egat-monopoly-marketplace/>).
- Sneddon, C. 2012. "The 'sinew of development': Cold War geopolitics, technical expertise, and water resource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1954~1975." *Social Studies of Science* 42(4), pp. 564~590.
- Sneddon C. and Fox C. 2006. "Rethinking transboundary waters: A critical hydropolitics of the Mekong basin." *Political Geography* 25(2), pp. 181~202.
- Suhardiman, D., Giordano, M. and Molle, F. 2012. "Scalar disconnect: The logic of transboundary water governance in the Mekong."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An International Journal* 25(6), pp. 572~586.
- TERRA. 1995. "Mekong politics: 'new era', same old plans." *Special Issue; Watershed: People's Forum on Ecology* 1(1).
- \_\_\_\_\_. 1996. "Pak Mun: The lessons are clear, but is anyone listening?." *Watershed* 1(3).
- WCD(World Commission on Dams). 2000. *Dams and development: A new framework for decision-making*. London: Earthscan.

인터넷 출처

- 메콩강위원회 <http://www.mrcmekong.org/>
- 메콩공유자원 [www.mekongcommons.org](http://www.mekongcommons.org)
- 세계재생에너지정보 <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
- 아시아개발은행 GMS 프로그램 <http://www.adb.org/countries/gms/main>
- 인터내셔널 리버스 <http://www.internationalrivers.org>
- 3S 보전 네트워크 <http://www.3spn.org/>
- GMS Grid: <http://www.gms-eoc.org>
- The Diplomat(온라인 저널) <http://thediplomat.com>.